

PA-50

겉보리(큰알보리1호) 지역별 파종시기에 따른 월동 후 생육정도

배정숙^{1*}, 윤창용², 최규환³, 민병규⁴, 장지선⁵, 안승현⁶

¹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 경북농업기술원

²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남농업기술원

³전북 익산시 서동로 413, 전북농업기술원

⁴경남 진주시 대신로 570, 경남농업기술원

⁵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⁶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서론]

최근 맥류 재배기간 중 기온상승과 강우량 감소 등 이상기상이 자주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개도의 맥류재배 주산지역(전남 순천, 경남 진주, 경북 대구, 전북 익산, 충남 예산)을 대상으로 겉보리 파종시기에 따른 지역별 생장, 발육, 수량,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파종적기와 한계기를 재설정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겉보리 시험품종은 큰알보리1호를 공시하여 답리작으로 파종량은 10a당 16kg을 휴립광산파하였다. 각 지역별 파종기는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순별로 7처리하여 월동 후 3월 중순에 생육조사를 실시하였다. 생육조사는 초장, 경수, 생체중, 건물중, 유수분화정도 등을 조사하였고, 유수장은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겉보리(큰알보리1호)의 파종 후 출현소요일수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 파종한 모든 지역의 파종구에서 7~10일로 비슷하였으나, 11월 중순이후 출현소요일수는 남부지역인 경남, 전남은 12~46일인데 비해 중부지역인 익산, 예산은 21~92일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초장은 파종기에 따라 47.5cm~4.1cm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지역간 초장은 순천, 진주, 익산, 대구, 예산순으로 길었다. m²당 경수는 모든 파종기에서 진주(2,087~1,133개)가 가장 많았고, 예산(422~34개)이 가장 적었다. 유수장은 모든 파종기에서 나주(25~0.9cm)가 가장 길었고, 예산(2.8~0.5cm)이 가장 짧았다. 1포기당 생체중, 건물중, 총엽수, 분얼수는 나주가 가장 높았고 예산이 가장 낮았으나, 분얼수는 예산과 익산이 많았다. 고엽수는 예산이 가장 많았고 진주가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이 겉보리의 파종시기와 지역간 월동 후 생육차이가 크게 나타나 앞으로 수량이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연구해서 지역별 파종적기와 한계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사업(과제번호: PJ01254707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053-320-0287, E-mail. jsbae24@korea.kr